

PMA '92에 출품된 미니 랩의 제품 특징

본 자료는 「Photo Market」 '92년 3월호에 게재된 자료중 미니 랩 관련 기사를 일부 발췌한 것이다.

아울러 본 자료는 PMA '92에 출품된 미니 랩의 제품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구성된 자료이니, 관심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고 바란다.

-편집자주-

=ONE CHANNEL이 주류로 부상, 자동화 확대.

“PMA '92에 출품된 품목중 Photofinishing 분야는 아마추어 제품처럼 이미 일본시장에 소개된 것들이 출품되었으나, 프로그램용 LAB SYSTEM 부문에서는 미니랩, 주변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각사로부터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었다.

미니랩분야에서는 특히 ONE CHANNEL의 Auto Printer기능을 갖춘 기종이 화제가 되었다.

이밖에도 확대형기종, 마이크로형, 반전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종 및 흑백처리가 가능한 기종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들이 선보였다.

ONE CHANNEL(Channel Select free, Color Scanner에 의한 one Channel화)의 Auto Printer기능을 갖춘 미니랩으로는 TFS (Total Film Scanning)기구를 탑재한 아그파 MSC2, MSC3에 이어 노리스 강기가 프린터 테이블 옆에 外置式스캐너 NOUS 201 을 표준 장비로 한 QSS 1701/1702 을 출품, 5000매 / 시간의 고속기능을 갖춘 QSS 1102에 대응하는

NOUS 101의 개발도 예고 했다.

또한 후지필름에서는 후지FA미니랩의 새로운 시리즈로 SFA 250/270(록키시리즈)를 소개했는데, 이 기종은 Auto Printer System 뿐만 아니라 파노라마 프린트를 비롯, 다양한 크기의 프린트가 가능하며 인화지의 자동교체 등 시스템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후지필름 SFA 250/270은 V-ACCS 스캐너와 Color CRT모니터를 갖춘 독특한 기종이다.

코니카도 카운터 데스크형의 NPS 808S를 출품했는데, 향후 코니카에서는 이 기종에도 one channel 스캐너를 탑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진확대기타입의 기종은 농도, 색조보정, 트리밍 지정 등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칼라모니터가 장착된 시스템을 후지, 노리스 강기, 아그파 등에서 출품했다.

후지 FA 720(23VE)는 디스크로부터 6×9 네가에 대응할 수 있으며, 최대 12×18인치 확대 프린트까지 가능하며 8×10을 190매 / 시간 처리 가능하다.

노리스 QSS 1602는 110-220필름에 대응하여 역시 12"×18"프린트까지 처리할 수 있다.

아그파 ML 2000/2000B는 8"×10"을 220매/시간 처리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스스로 모니터를 보면서 보정, 트리밍을 할 수 있고 8"×12"나 파노라마 프린트까지 할 수 있는 코닥 크리에이트A 프린트Ⅱ(걸작Ⅱ)를 코닥과 노리스에서 출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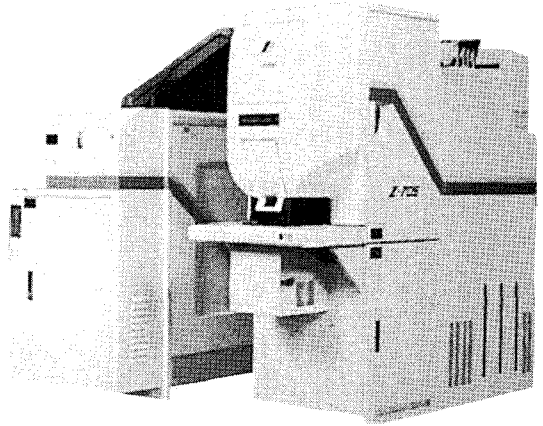
이밖에도 노리스와 후지에서는 간이형 기종인 사진확대 미니랩을 출품했다.

노리스 QSS 613D는 종래 기종 613B를 기본으로 Stabilizer 탱크의 형상이나 프로세싱부분을 개량, 필요한 테이블 면적을 2㎡ 정도로 하였다. 또한 표준장비 렌즈도 613B 135mm 이하 줌과 120의 2개에서 135mm 이하 줌 1개에 조리개를 도입, 생산 원가를 낮추었다.

후지 FA135(PP700w)은 1.23㎡의 소형화된 모델로 8"×12"프린트, 파노라마까지 대응하고 L size의 처리능력은 645매/시간이며, 135mm 이하의 줌 렌즈를 표준으로 장착하였다. 후지에서는 올해 이를 일본에 판매할 계획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올 여름부터 발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타입의 기종은 노리스, 그레탁, 프린트 테크놀로지(포토 고) 등이 출품하였으나, 코니카의 빅 미니랩이나 코닥으로부터의 QSS 1801 RA 출품은 없었다. QSS마이크로는 아직 시험적인 도입단계로 미국 최대의 랩메이커 코닥계의 쿠오락스가 QSS마이크로와 그레탁 마스타랩을 자기 회사 네트워크 가운데 센츨럴랩으로부터 flow-up하는 형태로 도입을 진행시켜, 여기에서 QSS마이크로는 약 60대가 이미 설치되었다. 아울러 리스 프로그램도 제안하였다.

프린트 테크놀로지(포토 고)는 4"×6"프린트 전용으로 240매/시간, 필름현상 6.5롤/시간(24매 기준)의 P-135에 더해, 이 모델을 고속화시켜 333매/시간, 9.3롤/시간까지 능력을 향상시킨 RA-135 터보 프로세서와 흑백 전용



처리기 P-135BW, 또한 상위기종 모델로 3.5"×5" 처리도 가능케 하고 필름도 종래의 135 전용이 아니라 126까지 대응할 수 있는 리드랩을 출품하였으며 처리능력 780매/시간(3.5"×5"), 700매/시간(4"×6")이다.

실제 가동면에서 본 미국의 미니랩 대수는 현재 약 1만7천대로 추정되며, Photofinishing 시장에서 미니랩으로 처리비율, 즉 미니랩화율은 미니랩 DP점, 약국, 카메라점, 양판점 등 다양한 판로를 모두 합해 약 35% 까지 향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가동대수의 매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3~5%에 그쳐 경기침체를 포함한 시장환경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PMA '92에 새로이 선보인 미니랩 기종은 미니랩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미니랩 도입선을 위한 품질관리나 지원 시스템으로 후지가 후지테콤이나 후지칼라 씨클을, 노리스 QSS NET를 미쓰비시제지 MITSY(프로용)를, 그레탁이 네트워크 솔루션을, 아그파가 파트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장동향을 반영하는 등 각종 시스템 프로그램의 소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에 대응한 미니랩기로는 후지 SFA 250/270이 Rinse-Clean화 장치 RC30

과 조합시켜 보충량, 폐액량을 1/2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출품하였으며, 코닥, 아그파도 각각 폐액을 하수구에 버릴 수 있는 기준을 Clean화 하는 장치를 출품하였다.

호프사도 Ecology시스템을 발표하였고 또한 아그파의 경우 저공해형으로 재고량이 액체상태에 비해 현격히 줄어드는 분말상태의 Solid Chemical을 출품,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종이 케이스의 필름과 일회용 카메라의 회수시스템이 선보여 환경보전을 반영한 제품개발을 기업체들이 인식하고 있는듯 했다.

랩기기 가운데 고속타입의 오토 프린트 시스템은 더욱 버전 업(version up)이 향상되어 고능력화 고조작성이 발전된 것으로서 아그파 MSP PLUS, 그레탁 3141/500 스캐닝 프린터 코닥의 클래스 35Ⅱ등이 소개 되었다. MSP PLUS 더블 페이지 매거진에 의해 페이지 장진을 2열(4 카세트)로하고 페이지 자동교환이 가능토록 했고, 생산성을 25% 높일수 있는 기구와 AFN 2(Auto. Film. Notcher)의 연동이 독특하였다. TFS 기구를 탑재한 AFN 2는 4만코마/시간의 Notcher 능력을 갖고 full/half의 자동교환이 되는것 외에 PMA '92에서는 '파노라마 촬영 네가의 자동판별도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 소개 되었다. 또한 그레탁 3141/500 프린터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8.30이 채용 되어 버전 업을 실현, 페이지 트리밍, 줌 렌즈 모니터, 온라인덴시트미터, 마스터 필름, 페이지 채널 콘트롤 등 Mini Lab의 종합 콘트롤 기능이 높아졌다.

HYBRID SYSTEM 큰 진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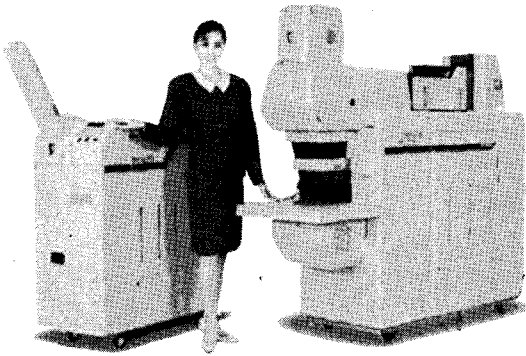
Photofinishing에 관한 전자영상의 Hybrid system으로서는 올 여름부터 시판이 시작되는 코닥의 포토 CD시스템에 대해서 코닥이 35mm 필름화상을 포토 CD 디스크로 변환시키기 위해 포토 CD Imaging, Work Station을 연출

“
칼라카피기는은
염방식으로
후지의 AP5500, 일포드의
디지털포토이미지,
3M의 칼라
레이저 이미지 인스
탄트 사진 플라로이드의 윈
스텝 카피어들이
나왔다.
”

했다. 이 변환 서비스는 올해부터 미국내 코닥 계열 Lab점에 50개소 이상이 설치 될 것이라고 한다. Imaging Work Station의 수주는 PMA '92 첫날부터 시작되어 4월부터 출하된다. 또한 포토 CD가 필름화상을 판독해 컴퓨터로 가공하고 다시 Ektachrome이나 Very Color, Pro에 출력하는 Premier, Image, Enhancement system과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채용하며 Film Reader와 Film Writer를 제외한 퍼스널, 프레미어 쌍방의 화상 입력방식이 가능한 것도 발표되었다.

포토 CD 시스템은 후지필름도 발표하였으나, 이것은 Imaging Work Station에 E35와 F45 두 가지를 가지고 E35가 코닥과 같이 135 사이즈 필름만인 것에 대해 F45는 135와 120, 4×5 필름에서도 포토 CD 디스크상에 변환시킨다. 후지는 이 변환 서비스를 금년 가을부터 일본시장에서 발매할 것이다.

이밖에도 코닥은 전자영상 Preview system, Prism XL의 콤팩트화와 조작능력 향상을 도모한 Prism XLC, 필름 스캐너로 35mm, 46mm, 70mm 길이의 롤 필름을 자동적으로 주사해서 최대 52명의 인물사진을 8.5"×11" 네가프린트 위에 합성하는 자동 사진합성 시스템도



발표했다.

칼라 카피기는 은염방식으로 후지의 AP 5500, 일포드의 디지털 포토 이미지, 3M의 칼라 레이저 이미지, 인스탠트 사진 폴라로이드의 원 스텝 카피어들이 나왔다. 일포드의 디지털 포토 이미지는 5만불, 레이저광으로 프린트하는 3M 칼라 레이저 이미지는 13만 5천불. 디지털 포토 이미지와 칼라 레이저 이미지어는 컴퓨터에서 화상 신호를 변환해서 은염 인화지에 프린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디지털 칼라 PPC는 캐논이 CLC 500과 300을 여러가지 입력 미디어로의 화상을 CLC용 신호로 변환시키는 IPU나 필름 스캐너, 필름 프로젝터와 조합시켜 실현하고 코닥도 동일 성능의 칼라 옛지 1550 카피어를 출품했다. 또한 아그파나 크로록스도 필름으로부터 칼라 카피를 얻을 수 있는 Unit와 합쳐 PPC 칼라 카피기를 출품했다.

출품된 페이퍼류중 새로운 것은 우선 칼라 인화지로서 후지가 일본의 슈퍼 FAV에 해당하는 슈퍼 FA Type 3을 프로용 SFA Type C(상업분야용), SFA 3 슈퍼크로스, 프린팅. 머터리얼(디스플레이용)과 아울러 소개했고, 또한 Type 35 시리즈도 후지크롬 페이퍼, 카피 페이퍼, 슈퍼 크로스, 프린팅. 머터리얼을 선보였다.

출품된
페이퍼류중
새로운 것은
칼라인화지로서
후지가 슈퍼 Type 3을
코닥이 흑색의 끝맺음을
종게한 포츨라 II 페이퍼
Type 2839를, 아그파는
콘트라스트영역을
확대시킨 프리미엄
페이퍼를
소개

코닥도 흑색의 끝맺음을 종게 한 포츨라 II 페이퍼, Type 2839를 출품 (5월 발매)했으며 흑백 인화지는 다계조 타입이 주류를 이뤘다. 아그파는 콘트라스트 영역을 확대시킨 프리미엄 페이퍼를 미쓰비시는 Activator Type의 GEKKD MD-F를 소개했고, 오리엔탈의 뉴시걸 포츨레이트는 흑백현상기 2000플러스, 2016을 출품하여 화제를 모았다.

이상의 것들 외에 주목을 받은 품목으로는 아그파의 슬라이드를 네가 인화지에 프린트 하는 데지프린트 시스템, 악세사리의 오토매틱 피더, 슬라이드 팩킹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포토 CD는 입력매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그레탁의 시스템 가운데는 컴퓨터 팩 V에 6열의 쿠폰피더 장착을 가능케 하였으며 아큐팩도 URS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아울러 후지는 미니랩 도입점 후지칼라 씨클을 위해 L사이즈용과 우편엽서 사이즈용 Photo Book을 출품 하였다.